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거점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함에 따라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충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개소 이후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상담을 운영하며 시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센터는 인바디 측정, 혈압·혈당 확인 등 기초 건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영양·신체활동 분야 전문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시민 참여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슬로우조깅, 건강등어리, 스마트폰 활용교실,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별 건강 수요를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송학마을서 주민 20명 산사태 대피 훈련

정읍시가 21일 내장산동 송학마을회관 일원에서 주민 20명과 유관 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정읍시청을 비롯해 정읍경찰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 소속 실무진 20여 명이 함께했다. 지역 주민 20여 명도 동참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절차를 꼼꼼히 살폈다. 교육에서는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위험 징후를 설명한 뒤 대피 요령, 지정 대피소 위치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모의 훈련에 직접 참여해 실제 대피 동선을 확인하면서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경찰서, 낙석·산사태 우려지역 합동 점검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20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낙석·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기상 상황 속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유실, 낙석 및 산사태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 등은 최근 공사를 마무리한 국도13호선 사고개 생태이동통로 정상 절개지 및 경사면 공사구간을 중심으로 낙석 및 산사태 우려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병원, 중증질환 정밀진단 강화

최첨단 SPECT-CT 장비 도입... 암·심혈관·뇌질환 조기진단 기대

전북대학교병원이 최첨단 핵의학 영상장비인 SPECT-CT를 도입하며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은 기존 SPECT 장비를 최신형 SPECT-CT(단일광자단층촬영·컴퓨터단층촬영) 장비로 교체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지멘스 헬시니아스의 최신 모델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신체의 생리적·기능적 변화를 측정하는 SPECT와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CT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진단 시스템이다.

새 장비는 기존 SPECT 대비 해상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기능적 이상과 해부학적 위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암 전이 여부를 물론 심혈관질환과 뇌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정밀 진단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암 진단과 병기 결정, 치료 효과 분석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중증질환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을 계기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더욱 강



화하고, 수도권 수준의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방침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최근 초고해상도 CT·MRI와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 도입에 이어 핵의학과 SPECT-CT까지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사회·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11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제11기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유정 전북진안지역사회복지센터장이 선출됐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총 15명의 민간위원과 공공영역의 4명의 위원이 위촉·임명됨으로써 제11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완료했다.

제11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7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119청소년단 발대식 개최

남원소방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전 의식을 심어주고 미래의 안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관내 유치부 119청소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가진 119청소년단은 △뽀뽀어린이집 15명 △영재어린이집 10명 △유엔마미어린이집 20명 등 총 45명으로, 단원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씩씩하게 다짐했다. 발대식 직후 단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 발생 시 올바른 119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실습 △화재 시 대피 요령 교육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재는 예방안전팀장은 "남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을 안전하게 이끌 멋진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날 해리파출소는 학생들과 등하교 통학로 위험요소, 불안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범죄예방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전달했다.

전평기 해리파출소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학생 맞춤형 안전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해리파출소(소장 전평기)는 지난 20일 해리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감 범죄안전도 설문조사와 학생 맞춤형 안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학교폭력·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리파출소장은 학생들과 등하교 통학로 위험요소, 불안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범죄예방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전달했다.

전평기 해리파출소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청소년 도박 예방 위한 '도박 예방 5형제' 출동

사치경찰·교육청·치유기관·캐릭터·웹툰 기반 공동 홍보 추진... 예방부터 상담·치유까지

전북특별자치도사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원광대학교병원 도박중독치유센터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조기치유 지원을 위한 공동 홍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박 예방 5형제' 캐릭터와 웹툰을 제작해 도박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캐릭터와 웹툰 콘텐츠를 활용해 예방·상담·치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전문기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캐릭터 '도박 예방 5형제'는 '결단→용기→보호→회복→차단'이라는 청소년 도박 예방 및 회복 과정을 상징한다. 홍보 콘텐츠에는 도박 문제 자기 점검과 상담 신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했다. 자진신고(117), 도박 문



제 상담(1336), 치료 상담 연락 체계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원스톱 연계를 지원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초·중·고 학생용 웹툰 및 카드뉴스 형태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버스정보시스템(BIS) 전광판, 학교전담경찰관(SPO)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